

진짜 강팀의 선제 조건 “초반 실점을 줄여라”

KIA, 왜 5할권에 머무나...답은 경기 초반 대량 실점

1-3회 ERA 5.44 '최하위'·원정 1-3회 ERA 7점대, 흐름 내줘 4-6회 실점은 '리그 최소'... '초반 실점 관리' 상위권 진입 변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5할 승률 언저리에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상위권 도약을 위해선 경기 초반 마운드 안정감이 관건이다.

5일 기준, KIA는 32경기에서 15승 16패 1무(승률 0.484)로 5위다. 1위 KT와는 6.5경기 차다.

4월 중순 8연승으로 4위까지 올라섰지만, 이후 줄곧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선 경기 초반 실점을 줄여야 한다.

실제 수치에서도 그 흐름이 확인된다.

KIA는 올 시즌 1-3회 총 61실점을 기록 중이다. 리그에서 가장 많다. 최하위 키움(50실점)과도 적지 않은 차이다.

1-3회 평균자책점(ERA)도 5.44로 리그 최하위다. 피홈런은 16개, 볼넷 허용 49개로 모두 리그 최하다. WHIP은 1.50으로 리그 두 번째로 높다.

이닝별 실점 분포도 뚜렷하다.

1-3회에는 실점이 집중되는 반면, 4-6회 실점은 37점으로 리그 최소다.

경기 중반에는 비교적 짜임새 있는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7-9회 실점도 52점으로 적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초반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정경기에서는 이런 모습이 더 두드러진다. 1-3회 평균자책점이 7점대를 넘어선다. 리그 두 번째로 높고, 실점 역시 가장 많다.

KIA는 원정에서 6승 11패, 승률 0.353에 머물고 있다. 키움에 이어 리그 두 번째로 낮은 승률이다. 초반 실점이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다만 최근 10경기에선 초반 실점 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개선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리그 하위권 수준이다.

지난 5일 한화전에서선 2회 5실점하며 경기 운영에 부담을 안았다. 3일 KT와의 경기에서도 3-1로 앞선 3회에 동점을 허용했다. 이후 경기 양상



이의리

은 KT 쪽으로 기울었다. 선발진 전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선발 평균자책점은 4.45로 리그 중위권이다. 경기 초반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은 보완 과제로 남아 있다.



양현종

반면 타선은 꾸준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닝별 득점권 타율은 1-3회 0.323, 4-6회 0.253, 7-9회 0.289다. 리그 평균이거나 그 이상이다. 전체적으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 힘은 유지되고 있다. 올 시즌 역전승도 7차례 기록했다. 끌려



네일

<KIA 타이거즈 제공>

가는 경기를 뒤집는 저력이 갖춰졌다. 결국 핵심은 경기 초반이다. 초반을 버티려면 한층 수월한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초반 실점 관리가 상위권 도약의 중요한 변수다. /주홍철 기자

‘완봉승’ 올린, 첫 ‘셸힐릭스플레이어’ 선정

3-4월 WAR 1.53...투수 부문 1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올라가 2026시즌 첫 ‘셸힐릭스플레이어’ 투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KBO와 한국셸릭스투자회사는 7일 2026 신한 SOL KBO리그 3-4월 셸힐릭스플레이어 수상자로 KIA 올라와 SSG 랜더스 박성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셸힐릭스플레이어는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을 기준으로 매달 타자와 투수 각 1명을 선정한다.

올리는 투수 부문 WAR 1.53으로 전체 1위에 올랐다.

시즌 출발부터 안정감이 돋보였다.

올리는 올 시즌 6경기에서 4승 1패, 평균자책점 1.64를 기록 중이다. 38%이닝 동안 36탈삼진을 잡아냈고, WHIP은 0.89에 불과하다. 피안타율 역시 0.173으로 낮다.

지난달 24일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는 9이닝 3피안타 무실점 완봉승을 기록했다. 개인 통산 첫 완봉승이었다.

세부 기록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올리는 승리 공동 1위(4승), WHIP 2위(0.89), 투구 이닝 2위(38%이닝), 평균자책점 3위(1.6



KIA 타이거즈 올라가 지난달 24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완봉승을 거둔 후 포수 한준수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4), 탈삼진 4위(36개)에 올라 있다. 퀄리티스타트도 4차례 기록했다.

지난 시즌 활약도 이어가고 있다.

올리는 2025시즌 26경기에서 11승 7패, 평균자책점 3.62를 기록했다. 149이닝 동안 169탈삼진을 잡아내며 KIA 선발진의 한 축을 맡았다.

타자 부문은 SSG 박성환이 차지했다. /주홍철 기자

박성환은 OPS 1.161로 리그 1위에 올랐고, 타율 0.411과 45안타를 기록하며 정확성과 생산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개막 후 22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어갔다.

3-4월 셸힐릭스플레이어 시상식은 5월 중 각 구단 홈경기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만원이 수여된다. /주홍철 기자

축구 국가대표 엄지성, 챔스필드 뜬다

오늘 한화전...KIA 승리 기원 시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홈경기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엄지성을 승리 기원 시구자로 초청한다.

2021년 광주FC에서 프로 데뷔 무대를 치른 엄지성은 이후 K리그에서 4시즌을 뛰고 영국 EFL 챔피언십의 스완지 시티 AFC로 이적했다.

엄지성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A매치 8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는 중이다.

엄지성은 “광주FC에서 뛰었던 만큼 광주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이다. 광주를 대표하는 KIA 타이거즈의 시구자로 함께하게 돼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년에 처음 직관한 뒤 야구에 매료돼 지금까지도 타이거즈를 응원하고 있다. 시구뿐만 아니라 야구장



엄지성 <KIA 타이거즈 제공>

을 찾은 팬들과 함께 열렬히 응원하며 승리를 기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홍철 기자



제55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한 광주체육중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체육중 제공>

광주체육중, 종별육상 금1·은2·동5 선전

광주체육중 육상부가 지난 4일 목포종합운동장에서 막을 내린 제55회 전국중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남녀혼성 1천600m 계주에 출전한 류지우·김현호(이상 3학년)·김도현·이세령(이상 2학년)이 3분51초95의 기록으로 경기 경안중(4분06초71), 전남체육중(4분29초20)을 제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여중부 3천200m 계주에서는 손예원·신윤아·안예지(이상 3학년)·은예령(2학년)이 팀을 이뤄 10분21초0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개인 종목에서도 메달 레이스가 계속됐다. 여중부 1천500m 경기에서는 안예지(3학년)

가 5분08초49로 2위를, 손예원(3학년)이 5분09초13으로 3위를 기록하며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다.

안예지는 여중부 3천m에 출전해 11분00초73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추가했고, 김아인도 100m 및 100m 허들에서 각각 12초46과 14초99의 기록으로 값진 동메달을 보냈다.

남중부 높이뛰기에서는 김민기(2학년)가 1m75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보냈다.

이병관 광주체육중 교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땀방울과 지도진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학생들이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밀착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순천미래과학고 박예지, 청풍기 유도 ‘금빛 메치기’

전남 유도, 금2·은5·동5...전 중별 고련 활약 돋보여

순천미래과학고 박예지(사진)가 제17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예지는 최근 정주 올림피아드생활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고등부 -52kg급 결승에서 최보영(경복체고)을 상대로 안뒤축추기기로 절반을 먼저 따낸 후 끊임없는 공격전개로 상대의 지도가 누적되며 우승을 확정했다.

박예지는 앞서 16강전에서 조가은(경남체고)에게 업어치기 절반과 유효를 잇따라 따낸 후 쟁기 기술로 한판승을 거뒀고, 8강전에서는 이다정(경민고)에게 유효를 얻어내며 4강에 진출했다.

4강전에서는 이슬(금곡고)을 맞아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누르기 기술로 유효를 기록하며 결승에 안착했다.

남자일반부 -60kg에 출전한 여동건(여수시청)도 결승에서 최정민(부산시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선수단은 박예지와 여동건의 금메달을 비롯해 신지영(+78kg, 순천시청), 최소운(-78kg)·정민서(+78kg, 이상 세한대 1년), 권시안(-81kg, 순천시흥중 3년), 장은송(-52kg, 광양마동초 6년)이 각각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며 고련 전력 분포를 보여줬다.

이어, 김도건(-73kg 여수시청), 김재홍(-51kg 순천시흥중 3년), 옥승우(+90kg, 청호중 3년), 정다솜(-57kg, 여수시전초 6년), 서유진(+57kg, 광양마동초 6년)이 동메달을 보냈다.

이번 성과는 특정 선수나 종별에 편중되지



않고 초·중·고·일반부 전반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전남 유도의 저변 확대와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다가오는 소년체전을 앞두고 전남 유도의 저력과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한 의미 있는 무대였다”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